전북미래학교 비전 · 성과 나누다

전북자치도교육청, '2024 전북미래학교 운영 성과보고회' 개최

교원 등 700여명 참여… 토크콘서트 · 숏폼 · 사례발표 등 구성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5일 더메이호텔에서 '2024 전북미래학교 운영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미래학교 및 일반학교 희망 교원 700여명이 참여했다.

올해 유치원 4개원, 초등학교 75개교, 중학교 36개교, 고등학교 25개교 총 140개교가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146개교로 확대된다.

성과보고회는 △토크 콘서트(유초중고 6개교) △숏폼 본선과 현장 참여자 투표(6개팀) △유초중고 실천사례 발표(9개교) △전북미래학교 운영 자료 전시 등으로 진행됐다.

먼저, 토크 콘서트에는 전주성형유치원, 전주신동초, 군산흥남초, 영만초, 전주덕일중, 전주중앙여고가 참여해 교육과정 · 기초학력, 수업혁신, 해외연수 등을 주제로 운영성과를 발표했다.

5일 더메이호텔에서 '2024 전북미래학교 운영 성과보고회'가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 등 관계자들이 전북미래학교 운영 자료 전시회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어진 초등 사례발표에서는 △AI에듀테크 활용 교육과정 운영(군산초 김성은 교사) △더불어 꿈꾸는 '영만 IB 학교' 성장 이야기(영만초 정재영 교사) △우리는 아침마다 버스 타고 미래학교로 갑니다(부귀초 강미경 교사) △개념기반 탐구수업과 에듀테크로 생각의 틀을 깨다(옥천초 하영화 교사)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또 중등에서는 △글로컬 전북미래학교 벨트화 in 옥구중 (옥구중 이승미 교사) △IB 관심학교로 미래교육을 열다(익산부송중 이혜숙 수석교사) △AI 코스웨어를 통해 교실의 벽을 허물다(화산중 정이나 교사) △EdTech 기반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전주고 임하진 교사)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주제 융합 수업(전주여자고 권세진 교사) 등을 주제로 실천사례를 발표했다.

오선화 미래교육과장은 "전북미래학교는 탄탄한 기초기본학력을 기반으로 미래 역량을 갖춘 세계시민을 키우기 위한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라며 "이번 성과공유회를 통해 전북미래학교의 비전과 성과를 나누며, 더 나은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올해의 과학교사상' 선정

동신초 한승인 교사 등 도내 교사 3명

한승인

황운기

이승완

'2024년 올해의 과학교사상'에 도내 교사 3명이 선정됐다.

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동신초 한승인 교사, 전주동중 황운기 수석교사, 세인고 이승완 교사가 올해의 과학교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상은 과학교육 활성화와 과학문화 확산 등에 공헌한 교사에게 주는 것으로, 올해는 전국에서 초등 15명, 중등 15명 등 총 30명이 받았다.

먼저, 한승인 교사는 과학 교육자료 및 콘텐츠 개발, 학생 발명 지도, 지역 연계 과학교육 활동 등 과학교육에 대한 열정이 수상으로 이어졌다.

또 황운기 수석교사는 학생 배움중심 수업, 과학 및 융합교육 연구활동, 발명 · 영재교육, 교사연구회 활동 등에서 꾸준히 실천해 온 노력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끝으로 이승완 교사는 과학 캠프와 지역과학축제, 과학탐구대회 지도, 과학교육 연구회 운영 등 과학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시상식은 이날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진행됐다. 수상자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부상으로 포상금(500만원), 해외연수(일본)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

교사 3명은 "학생들이 과학을 통해 세상을 탐구하며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돕겠다"며 "과학교육에 더 큰 열정을 갖고 변화되는 시대에 발맞춰 성장하는 과학 교사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교사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 학교 급식 안전성 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5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4 학교 급식 안전성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영양교사, 영양사, 영양실무사 및 교육지원청 학교 급식 업무 담당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제공 및 학교 급식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주요 내용은 △원산지표시의 법적 요구사항과 관리방법 △Non-GMO 식재료의 정의와 중요성 △학교 급식 위생과 HACCP 관리 및 작성의 이해 등이다.

강사로는 최미진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팀장과 최정화 숭의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연수를 통해 학교 현장의 올바른 원산지표시제 적용 및 유전자 변형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의 필요성과 신뢰할 수 있는 급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급식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실감미디어혁신융합대학사업단은 지난 4일 실감형 문화관광 지산학 얼라이언스 발대식 및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실감미디어 기반 문화관광 콘텐츠 활성화

전주대, 실감형 문화관광 지산학 얼라이언스 발대식 · 전략 포럼

디지털숲 명상 오디세이 통해 실감미디어 기술 적용 콘텐츠 경험

전주대학교 실감미디어혁신융합대학사업단은 지난 4일 실감형 문화관광 지산학 얼라이언스 발대식 및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지자체, 산업계, 대학이 협력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실감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문화 · 관광 콘텐츠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이날 지산학 얼라이언스 협의체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 협의체는 지자체, 산업계, 대학이 협력해 실감미디어를 활용한 지속 가능한 문화 · 관광 콘텐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산업계, 지역, 학계 등 총 58개의 기업 및 대학, 기관으로 이뤄진 협의체로 구성원들의 업무협약(MOU)를 통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어진 전략 포럼에서는 산업계 대표, 지역 기관, 학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실감미디어 분야의 주요 이슈와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전주대학교 박형웅 연구교수는 지산학 협력 모델을 제안하며, 지역 문화 · 관광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발표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디지털숲 명상 오디세이' 체험을 통해 실감미디어 기술이 적용된 콘텐츠를 직접 경험했다. 이 프로그램은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해 숲속 명상과 힐링을 제공하며, 실감미디어의 문화 · 치유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전주대학교 박진배 총장은 "문화관광 지산학 얼라이언스는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실감미디어 기술을 활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로 재탄생시키는데 주력했다"며 "대학과 산업계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경제와 문화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50선' 선정

우석대 손수경 교수

우석대학교 손수경(혁신사업단) 교수가 교육부의 '2024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은 각 학문 분야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룬 우수한 연구 결과물을 발굴하기 위해 인문사회와 이공, 한국학 등 3개 분야별로 우수성과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2023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성과물 가운데 공모와 추천을 통해 227건의 후보 과제를 접수, 성과물의 독창성과 우수성, 학술적 기여도 등의 종합평가를 거쳐 인문분야 26선과 이공분야 20선, 한국학분야 4선 등 총 50선이 선정됐다.

이에 인문분야에 이름을 올린 손수경 교수는 '한국 아동 · 청소년 우울증상 발달의 연속성과 안정성에 대한 종단 메타분석 연구'라는 주제로 아동기에서 청소년기까지 우울 증상이 발달적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와 이러한 변화가 성별, 출생 코호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냈다.

손 교수는 "사회 · 문화적 요인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조명했으며, 이번 연구 결과가 아동 ·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하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4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은 성과집으로 제작돼 교육부 누리집에 탑재된다. /장은성 기자

비전대 김진건 학생, 연세대 미래캠퍼스 연계편입학 합격

전주비전대학교 김진건(보건의료정보관리학과) 학생이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연계교육과정 편입학에 합격했다고 5일 밝혔다.

보건의료정보관리학과는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2024학년도부터 기존의 보건행정학과 명칭을 변경하고 새롭게 출범했다. 국제표준에 기반한 보건의료정보관리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보관리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교수진은 전원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를 보유한 전문가들로 구성돼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전주비전대학교는 2016년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연계편입학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10년 연속으로 졸업생들이 연세대학교에 편입학하는 성과를 이뤘다. 특히 2023학년도 설민호 졸업생은 연세대 연계 편입학 후, 2025학년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보건정책관리학전공)에 합격했다. /장은성 기자

RISE 체계 중심 지역·대학 목표 실현방안 제시

전북대, JBNU RISE 성과포럼

도내 지자체 관계자 등 참석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5일 인터내셔널센터 동행홀에서 '2024 JBNU RISE 성과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도내 지자체 및 기관 관계자, 대학 구성원 등 100여 명이 참석, 대학의 연구와 교육 혁신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조명하고, RISE 체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대학이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송철규 부총장은 개회사에서 "RISE 체계의 핵심 성과지표 4개와 자율 성과지표 12개를 달성하기 위해 전북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시그니처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며 "오늘의 논의가 지역사회와 대학이 함께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대학교는 5일 인터내셔널센터 동행홀에서 '2024 JBNU RISE 성과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은 송철규 부총장 등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이다.

이어 이지형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협력추진단장은 "내년 3월 본격 출범하는 RISE 사업은 지역 혁신과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이 사업에서 지향하는 방향과 계획을 공유했다.

이후 RISE와 관련된 지역-대학 간 협력 사업인 글로컬대학30 사업, LINC3.0 사업을 비롯해 RIS미래수송기기사업단, RIS교육혁신본부 등의 사업 성과 발표가 이어졌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모현 꿈빛체육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시로 스스로 움직이는 '능동 휠체어 마크' 타일 완성

이리모현초 학생들이 제작

공존 · 상생의 가치 일깨워

이리모현초등학교 학생들이 장애인 전용 구역의 주차표시로 스스로 움직이는 '능동 휠체어 마크'를 타일로 제작해 관심을 끌고 있다.

'능동 휠체어 마크'는 기존 고정 자세가 아닌 두 손으로 힘차게 휠체어를 돌려 앞으로 나가는 모습이다. 이에 따르면 이 작품에는 총 800여 장의 정사각형 타일에 전교생이 정성껏 그린 무늬를 담았다. 특히 색을 달리해 배치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별 없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존의 가치를 담고 있다.

이는 내년 준공 예정인 모현 꿈빛체육관 장애인 주차구역에 공식 부착할 예정으로, 현재는 촬영 실사판으로 본관 벽면에 부착돼 있다.

임성국 특수교사는 "장애인식개선 통합교육을 통해 이리모현초 학생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특징을 가진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서로의 다른 점을 배우는 즐거운 경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리모현초는 내년에도 교육과정 안에서 스마일 프로그램(장애인과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교육과정)을 적용한 통합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산업체 전문가 창의역량 강화 특강 진행

전주비전대학교 산학협력기술원은 지난 4일 창조관 합동강의실에서 산업체 전문가 창의역량강화 특강을 진행했다.

8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이날 특강은 최신 기술 트렌드와 미래 산업의 방향성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을 진행한 캠틱종합기술원 이정화 센터장은 "학생들이 향후 혁신적인 기술 분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미래의 기술 인재들이 창의적이고 글로벌한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